

## 〈채국도(採菊圖)〉와 도연명 문학작품의 상호텍스트성 연구

강경희

### I. 머리말

姜慶姬

건국대학교 강사  
中國南京大學  
中國語言文學 博士  
중국고전문학

동진(東晉)에서 남조(南朝) 송대(宋代)에 걸쳐 살았던 도연명(陶淵明, 352 혹은 365~427)은 중국과 한국의 고대 문인들에게 고금 은사의 종주로 숭배되면서 은일문화를 대표하는 하나의 아이콘이 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당대(唐代)부터 도연명과 관련된 그림이 존재했고, 그의 문학과 그와 관련된 이야기는 수많은 화가들이 애호했던 화제(畫題)가 되었다.

도연명이 은일의 우상이 되는 데 기여한 주요 작품은 「귀거래해사(歸去來兮辭)」, 「도화원기(桃花源記)」, 「오류선생전(五柳先生傳)」, 「음주20수(飲酒20首)」를 꼽을 수 있다.<sup>1</sup> 「귀거래해사」는 ‘귀은(歸隱)’에 대한 결단을 노래한 작품으로, 후대 문인들이 은거를 결심할 때면 으레 떠올렸던 명작이다. 북송(北宋)의 대문호 소식(蘇軾)이 도연명의 「귀거래해사」에 화운한 「화도사(和陶辭)」를 지은 이후, 셀 수 없이 많은 문인들이 귀은을 결심할 때면 「화도사」를 지었다. 이로 말미암아 도연명의 「귀

\* 이 논문은 2015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5 S1A5B4A01036780)

\*\* 필자의 최근 논저: 「한국과 중국의 〈歸去來圖〉에 나타난 陶淵明 〈歸去來辭〉의 隱居生活과 隱者形象」, 『中國文學』72, 韓國中國語文學會, 2012. 8; 「蘇東坡의 貶謫時期 삶을 통해 본 〈東坡笠屐圖〉의 함의」, 『東方學』22,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012. 2.

1 이 텍스트들이 도연명으로 상징되는 은일의 전범 양식을 창출한 것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류준필, 「한자문화권 문화교육에서의 古文 활용방안과 그 의의」, 『중국어문학지』26 (2008. 4), pp.284-289 참조.

귀거래사」를 소재로 한 〈귀거래도(歸去來圖)〉 역시 북송 이후 널리 유행했다.

동양적 유토피아의 전형으로 널리 알려진 「도화원기」는 도연명이 상상한 이상향이였다. 이후 도연명이 그린 이상향 ‘도화원’은 이상적인 ‘은일공간’으로 자리매김되면서 〈도원도(桃源圖)〉 역시 널리 환영받았다. 「오류선생전」은 도연명 자신을 비유한 탁전(託傳)으로 해석되면서 그의 인품을 드러내는 자화상에 그치지 않고 이후 문인들에게 은자 형상의 전범으로 받아들여졌다. 때문에 ‘오류(五柳)’ 및 ‘버드나무’가 은사 도연명을 환유하는 하나의 상징물이 되었다.

「음주20수」는 은거 후 도연명의 생활과 정신적 경지가 잘 드러난 작품으로 인구에 널리 회자되었다. 이 시는 음주, 국화, 소나무 등이 도연명과 긴밀히 연관되어 은일의 문화적 상징이 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음주20수」의 제5수 “동쪽 울타리에서 국화를 따다가 물끄러미 남산을 바라본다(採菊東籬下, 悠然見南山)”는 국화와 도연명이 지금까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맺게 한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으며, 〈채국도(採菊圖)〉로 범칭되는 일련의 그림을 탄생시켰다.<sup>2</sup>

현존하는 도연명 관련 회화를 살펴보면 주제별로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도연명의 초상화, 둘째는 「귀거래사」를 소재로 한 〈귀거래도〉, 셋째는 「도화원기」를 소재로 한 〈도원도〉, 넷째는 도연명의 시를 화제로 한 시의도이다. 본고는 은일의 고아한 정취를 드러내는 그림의 흐름에서 주요한 줄기를 형성하고 있는 도연명 관련 그림 중에서 「음주」시를 제재로 한 〈채국도〉를 중심으로 하여 문학 텍스트와 회화 이미지 사이의 상호텍스트성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sup>3</sup>

〈채국도〉는 흔히 「음주」 제5수의 “채국동리하(採菊東籬下), 유연견남산(悠然見南山)” 구를 이미지화한 것으로 널리 이해되고 있다.<sup>4</sup> 그러나 현존하는 〈채국도〉를 보면 소나무, 술잔, 지필묵 등 다양한 소재가 함께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소재들이 단지 화면 구도상의 시각적 아름다움을 위해 화가가 자의적으로 마련한 장치에 그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한다면 무슨 이유로 〈채국도〉에

2 〈東籬採菊〉, 〈淵明采菊圖〉, 〈淵明賞菊圖〉, 〈陶淵明愛菊圖〉, 〈東籬賞菊圖〉 등등 이를 주제로 하는 다양한 화제(畫題)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들을 포괄하는 대표 명칭으로 〈採菊圖〉라 하겠다.

3 〈귀거래도〉와 〈도원도〉는 이미 선행연구가 축적되었으며, 또 지면상의 이유로 인해 여기서는 논외로 한다. 선행연구로 이종숙, 「朝鮮時代 歸去來圖 研究」(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허용, 「朝鮮時代 桃源圖 研究」(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위안싱페이, 「도연명을 그리다」, 김수연 역(태학사, 2012) 등이 있다.

4 조인희, 「조선후기 詩意圖 연구」(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유미나, 「中國詩文을 주제로 한 朝鮮後期 書畫合璧帖 研究」(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등 참조.

이러한 소재들이 등장하게 되었을까? 화가는 무엇을 근거로 이러한 소재들을 함께 배치했을까? 「음주」 제5수만으로는 이러한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목록서나 현존 작품을 살펴보면 〈채국도〉는 〈동리채국(東籬採菊)〉, 〈연명채국도(淵明采菊圖)〉, 〈연명상국도(淵明賞菊圖)〉, 〈도연명애국도(陶淵明愛菊圖)〉, 〈동리상국도(東籬賞菊圖)〉, 〈동리충국도(東籬叢菊圖)〉, 〈동리한국도(東籬寒菊圖)〉, 〈도연명대국도(陶淵明對菊圖)〉, 〈연명후국도(淵明嗅菊圖)〉, 〈동리채거도(東籬採居圖)〉 등등의 제목으로 다양하게 분화되며 변주되는 양상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그림들을 살펴보면 그림 제목과 그림에 적힌 화제와 그림으로 표현된 내용이 서로 다층적으로 겹쳐져 하나의 복합적인 이미지를 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거기에는 「음주」 제5수 외에 다른 텍스트들이 함께 관여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처럼 다양한 제목과 다양한 도상의 〈채국도〉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도연명과 관련된 기록 및 그의 문학 작품 전반에 걸친 좀 더 폭넓은 이해가 요구된다.

따라서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채국도〉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이해를 위해 그에 나타난 도상과 도연명 문학 텍스트와의 상호텍스트성의 양상을 면밀하게 고찰하고자 한다. 회화와 문학 간의 상호텍스트성을 고찰하는 본 연구를 통해 〈채국도〉의 화제가 다양하게 변주되는 양상을 탐색하는 데 일조하기를 기대한다.

## Ⅱ. 채국도 - 「음주」 제5수의 시의도(詩意圖)

〈채국도〉는 도연명의 시 「음주」 제5수를 주제로 하는 그림을 말한다. 제목의 ‘채국’은 이 시의 “採菊東籬下, 悠然見南山”구에서 유래한다. 〈채국도〉에는 이 구절을 널리 화제로 삼았기 때문에 그림 제목에 ‘채국(採菊)’ ‘동리(東籬)’ 등의 글자가 많이 보인다. 이 시는 도연명의 은거 방식과 은거 생활에서 얻은 자적(自適)의 정취를 너무나 아름답게 표현함으로써 지금까지도 널리 애송되는 걸작중의 걸작이다. 먼저 시를 보자.

사람 사는 곳에 초막 짓고 살아도  
수레와 말의 시끄러움이 없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마음이 멀어지면 사는 곳은 절로 외지게 되는 법

동쪽 울타리에서 국화를 따다가  
 물끄러미 남산을 보네  
 해질녘 산빛은 아름답고  
 나는 새 서로 더불어 돌아온다  
 이 속에 참 뜻이 있어  
 말하려 하나 이미 말을 잊었네

結廬在人境, 而無車馬喧。  
 問君何能爾, 心遠地自偏。  
 採菊東籬下, 悠然見南山。  
 山氣日夕佳, 飛鳥相與還。  
 此中有真意, 欲辯已忘言。<sup>5</sup>

첫 4구는 도연명의 은일 방식을 보여준다. 도연명이 은자의 전형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깊은 산 속에 외따로 살지 않으면서도 세속의 소음에 영향을 받지 않는 고요한 은둔의 삶을 살아가는 데 성공한 최초의 은사였기 때문이다. 도연명의 은일의 독특함은 정치적 질서의 지배를 받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 그것과는 구분된 은둔의 공간을 “심원지자편(心遠地自偏)”이라는 방식으로 창출해냈다는 점에 있다. 도연명으로 말미암아 몸이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마음이 세속으로부터 멀어지면 은둔하는 삶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제5~6구는 은거 생활에서 얻은 자적의 경지를 보여준다. “동쪽 울타리에서 국화를 따다가 물끄러미 남산을 보네(採菊東籬下, 悠然見南山.)”는 북송 소식(蘇軾, 1037~1101)에 의해 “외물(境)과 자아(意)가 딱 부합하는(境與意會)” 요묘한 경지를 기가 막히게 잘 표현했다는 극찬을 받으면서 절세의 명구로 알려졌다. ‘울타리에서 국화를 따다가 아무 생각 없이 눈을 들어보니 남산이 보이더라’는 이 장면이 사물과 자신이 하나가 되어 경계가 없어진 ‘무아지경’의 경지를 포착하여 절묘하게 표현했다는 말이다. 그것은 자아가 사라지고 도가 깃든 자연과 하나가 된 경지, 아상(我相)을 놓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대자유의 경지이다. 너무나 소박하

5 陶潛, 『陶淵明集校箋』龔斌 校箋, (上海古籍出版社, 1999), pp.219-220.

고 범상한 일상의 한 장면을 통해 도연명이 은거를 통해 도달한 참된 경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로부터 “採菊東籬”는 은둔의 삶에서 누리는 자적의 지고한 정신 상태를 상징하게 되었다.

본래 ‘채국’은 식용하기 위해 국화를 따는 행위였다. 예로부터 국화는 장수를 돕는 식물로 알려져 중앙절에 국화주를 마시는 풍습이 생긴 것이다. 아마 도연명이 국화를 따는 행위도 그러한 풍습으로 인한 것이었으리라 추측된다. 그러나 “採菊東籬下”라는 행위에 “悠然見南山”이 함께 연결되면서 ‘채국’은 술을 담기 위해 국화꽃을 채취하는 단순한 행위를 초월하는 새로운 의미의 지평을 획득한다. 고사리를 캐는 ‘채미(採薇)’가 백이숙제로 말미암아 은일을 상징하게 된 것처럼 당송 이후 ‘채국’은 도연명과 연결된 은일을 상징하게 되었다.

제7~8구는 저녁 햇살에 산 빛이 아름다운 때 새가 둥지로 돌아오는 풍경을 묘사했다. 해 저물자 돌아오는 새는 도연명의 시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미지이다. 새가 ‘돌아오는’ 것은 도연명의 ‘귀거래’를 의미한다. 세상으로 나갔다가 고향으로 돌아와 은둔하는 시인 자신의 모습이기도 하며, 또한 그 ‘돌아옴’은 비본래적 삶에서부터 본래적 삶으로의 회귀를 의미한다.<sup>6</sup> 제9~10구는 본래적 삶으로 돌아온 시인이 자적하는 삶에서 얻는 인생의 참 의미를 깨닫고 진짜 삶이 주는 진정한 기쁨과 자유를 맞본다. 그러나 그것은 스스로 체득하여 경험할 수만 있을 뿐 말로 설명할 수는 없다.

송대 소식과 주희(朱熹)에 의해서 도연명은 청풍량절(淸風亮節)한 은일지사(隱逸之士)의 전범이 되었고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호응하면서 “採菊東籬下, 悠然見南山”은 널리 환영받는 화제가 되었다. ‘채국동리’를 화제로 한 그림에 대한 초기 기록으로 북송 소식의 제화시 『이공린의 <연명동리도>에 적다(題李伯時淵明東籬圖)』를 꼽을 수 있다. 그림이 전해지지 않고 또 현존하는 목록서에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림의 구체적인 모습을 알 수는 없지만, 이로 말미암아 북송 때부터 도연명의 「음주」 제5수를 그린 시의도가 창작되었음을 미루어 알 수 있다. 이외에 북송 조영양(趙令穰, 1070?~1100?)의 <연명상국도>와 <시상상국도(柴桑賞菊圖)>가 『수정재운연과안록(須靜齋雲煙過眼錄)』, 『대관록(大觀錄)』, 『청하관논화절구(靑霞館論畫絕句)』 및 『산호망화록(珊瑚網畫錄)』 등에 보인다. 또한 남송 마원(馬遠, 1160 혹은 1165?~1225?)의 <연명상국>에 대한 기록이 『남송원화록(南宋院

6 도연명의 돌아옴의 의미에 대해서는 원정근, 『陶淵明의 되돌아감(歸)의 의미』, 『道敎文化研究』 21 (2004) 참조.

畫錄』을 비롯한 여러 서화목록서에 보인다. 현재 시게키 가이즈카 컬렉션(Shigeki Kaizuka Collection)에서 소장하고 있는 마원의 <도연명채국도(陶淵明采菊圖)>가 있는데 이 작품이 상기한 목록서에 보이는 마원의 <연명상국>과 같은 작품인지는 더 고찰해보아야 한다. 원대(元代)에는 성무(盛懋, 생졸년 미상)의 <연명애국도>가 목록서에 보이며, 『식고당화고(式古堂畫攷)』에 왕연(王淵, 생졸년 미상)의 <동리채거도(東籬採菊圖)>와 <동리송주도(東籬送酒圖)>가 보인다.<sup>7</sup>

그 밖에 『어정역대제화시류(御定歷代題畫詩類)』 권37에는 송(宋) 한구(韓駒, 생졸년 미상)의 <채국도(題采菊圖)>, 왕십봉(王十朋, 1112~1171)의 <채국도>, 금(金) 조병문(趙秉文, 1159~1232)의 <동리채국도(東籬采菊圖)>, 원(元) 원호문(元好問, 1190~1257)의 <채국도이수(采菊圖二首)>, 유인(劉因, 1249~1293)의 <채국도> 등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어<sup>8</sup> 송대에서 금, 원대까지 <채국도>가 지속적으로 창작되어 온 사실을 뒷받침해 준다. 명청대에는 많은 작가의 작품이 기록에도 보이고 현존하는 작품 목록에도 다수 확인된다. 상술한 기록을 통해서 북송 이후 도연명의 「음주」 제5수는 꾸준히 사랑받았던 화제였음을 알 수 있다.

이제 이 시를 화제로 한 그림 몇 점을 보자. 동기창(董其昌, 1555~1636)의 <채국망산도(採菊望山圖)><sup>1</sup>는 화면 정면에 수려한 소나무가 있고 그 뒤로 산



1  
동기창  
<채국망산도>  
비단에 채색  
30.8×164.1cm  
베이징 고궁박물관

7 이상 회화 기록은 福開森 編, 『歷代著錄畫目』(人民美術出版社, 1993) 참조.

8 『御定歷代題畫詩類』, 四庫全書本.

2

석도  
〈도시채국도〉  
1671년  
종이에 채색  
112.5×47.2cm  
베이징 고궁박물관



3

정선  
〈동리채국〉  
종이에 담채  
22.7×59.7cm  
국립중앙박물관



이 펼쳐진다. 화면 왼편에 자리한 소박한 가옥의 국화가 핀 울타리 곁에 도연명이 서 있다. 인물은 매우 작게 묘사되었고 산수가 중심이 되고 있다. 그림 왼편에는 동기창이 쓴 「음주 제5수 전문이 이어진다. 청(淸) 석도(石濤, 1641~1720?)의 〈도시채국도(陶詩採菊圖)〉<sup>도2</sup>는 “採菊東籬下, 悠然見南山”을 화제로 적었다. 멀리 솟은 산봉우리 아래 아름답디 소나무 사이로 국화 떨기와 허리를 숙여 국화를 꺾는 인물, 띠집 지붕이 보인다. 조선 정선(鄭敼, 1676~1759)의 부채 그림 〈동리채국〉<sup>도3</sup>은 울창한 소나무 아래 국화 떨기가 있고 그 곁에 도연명이 앉아 멀리 남산을 바라보고 있는 장면을 그렸다. 인물 앞에는 꺾은 국화 한 가지와 술잔이 놓여있다. 소나무 뒤에는 문이 열려있는 울타리가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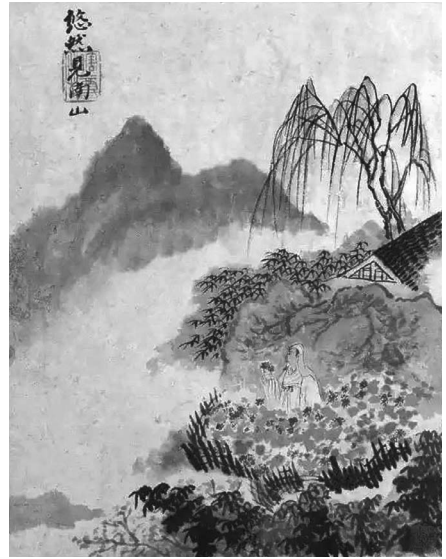
이상 세 작품의 공통점은 ‘채국’과 ‘견남산(見南山)’을 주요 모티프로 삼아 “採菊東籬下, 悠然見南山”이 발산하는 시정(詩情)을 강조하면서도 「음주 제5수의 공간적 배경의 이미지에도 공을 들였다. 석도와 동기창은 특히 인물은 매우 작게 처리하고 배경이 되는 산수 묘사에 치중했다. 차이점이라면 동기창의 그림은 물끄러미 바라보는 남산을 화면 정면에 배치하여

강조했고, 석도는 기험한 산봉우리를 원경으로 처리하고 근경에는 소나무를 여러 그루 배치하였다는 점이다. 석도의 〈도시채국도〉는 농묵으로 표현된 산봉우리 끝과 소나무 잎들로 둘러싸인 여백 속에 작기는 하지만 국화를 꺾는 인물을 배치하여 ‘채국’하는 행위를 부각시켰다. 이에 비해 정선의 〈동리채국〉은 인물을 클로즈업시켜 남산을 바라보는 인물의 행위에 중점을 두었다.

조선시대에 제작된 서화합벽첩인 《만고기관첩(萬古奇觀帖)》에는 한후방(韓後邦, 생몰년 미상)의 〈동리채국〉과 양기성(梁箕星, ?~1755)의 〈도령채국(陶令)〉

採菊)이 수록되어있다.<sup>9</sup> 한후방의 <동리채국>은 소나무 아래 앉아 국화를 꺾어 오는 동자를 바라보는 도연명을 그렸다. 도연명이 앉은 주위에 국화 떨기가 여기저기 보이고 그의 발치에는 국화 화분도 있다. 원경으로 산봉우리가 펼쳐지고, 근경에는 울창한 버드나무와 울타리가 보인다. 양기성의 <도령채국>은 국화 한 다발을 손에 들고 바위에 앉아 먼 곳을 응시하는 도연명을 그렸다. 인물의 왼쪽으로는 국화와 울타리 전답이 배치되어 있고, 뒤쪽으로는 멀리 첩첩이 늘어난 산봉우리가 보인다. 화면 맨 아래쪽 근경에는 무성한 버드나무와 가옥의 지붕이 보이고 소나무 가지들 인물 오른 쪽 뒤에 슬쩍 걸여놓았다. 석도의 <도잠시의도(陶潛詩意圖)> 12폭 화책 중에 “悠然見南山”을 화제로 한 그림이 있는데<sup>4</sup> 국화를 꺾어 손에 든 도연명이 남산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모습을 묘사했다. 가옥 주변에 대나무 숲이 있고 그 너머로 잎이 다 떨어지고 가지만 남은 버드나무 한 그루가 가옥 지붕 위로 솟아 있어 눈길을 끈다.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제목의 <채국도>를 보면 ‘채국’ ‘동리’ ‘남산’이라는 주요 모티프를 통해 “採菊東籬下, 悠然見南山”의 시정을 표현하면서도 소나무, 버드나무, 술잔 등 다양한 요소들이 함께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소나무는 동기창의 <채국망산도>나 석도의 <도시채국도> 등은 물론이고, 그 밖의 소경인물식 구도에도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음주」 제5수에는 소나무가 등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화가들은 <채국도>에 소나무를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 묘사하였을까?



4  
석도  
<도잠시의도>  
<유연견남산>  
27×21.3cm  
베이징 고궁박물관

### Ⅲ. 채국도의 소나무와 도연명의 문학 텍스트

‘동쪽 울타리의 황국(東籬黃菊)’과 더불어 ‘동원의 푸른 소나무(東園靑松)’ 역시 도연명의 고결한 인품을 상징하는 주요한 표상이다. 중국문화에 있어서 국화는 도연

9 도판은 유미나, 앞의 논문, p.302 참조.



명이 독점한 표상이었기 때문에 도연명 하면 국화를, 국화하면 도연명을 연상한다.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알려지기는 했지만 소나무 역시 도연명이 꺾이나 사랑했던 대상이었고, 소나무를 통해 “송백후조(松柏後彫)”의 고고한 기상을 드러냈다.

도연명과 소나무가 함께 등장하는 도상은 「귀거래혜사」의 내용을 그린 <귀거래도>에 많이 보인다. 「귀거래혜사」에서 “해가 어둑어둑 지러는데, 외로운 소나무 어루만지며 서성인다(景翳翳以將入, 撫孤松而盤桓)”라고 한 구절은 많은 화가들에 의해 환영받은 화제였다. 「귀거래혜사」를 여러 장면으로 나누어 그린 <귀거래도>를 보아도 이 구절을 그린 장면이 대부분 등장하고, 또 이 장면만 그린 <무송반환도(撫松盤桓圖)>와 같은 그림도 있다.<sup>10</sup> 이 때문에 소나무와 도연명은 주로 「귀거래혜사」의 “撫孤松而盤桓” 구와 관련되어 이해되고 있다.<sup>11</sup> 그러나 소나무가 도연명을 상징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표상이 된 데에는 「음주시 제4수 및 제8수가 「귀거래혜사」보다 더 많은 것을 설명해준다.



5  
양해  
<동리고사도>  
비단에 채색  
71.5×36.7cm  
대만 국립고궁박물원

그러한 예로 먼저 송나라 양해(梁楷, 1140?~1210?)의 <동리고사도(東籬高士圖)>도5를 보자. 제목의 ‘東籬’가 “採菊東籬下”를 연상시키는 바와 같이 그림 속 도연명은 국화 한 송이를 손에 들고 걸어간다. 갈건을 묶은 끈이 바람에 표표히 날리고 멀리 바라보는 시선과 얼굴 표정에는 초월한 기상이 드러난다. 고풍량절(高風亮節)한 고사의 풍모가 넘친다. 그의 뒤로 거대한 아름다리 소나무가 화면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얼핏 보기에 도연명 묘사에 매우 세심하게 공을 들였음을 알 수 있다. “撫孤松而盤桓”을 주제로 한 것도 아니고, 국화를 든 도연명을 그리면서 화

그러한 예로 먼저 송나라 양해(梁楷, 1140?~1210?)의 <동리고사도(東籬高士圖)>도5를 보자. 제목의 ‘東籬’가 “採菊東籬下”를 연상시키는 바와 같이 그림 속 도연명은 국화 한 송이를 손에 들고 걸어간다. 갈건을 묶은 끈이 바람에 표표히 날리고 멀리 바라보는 시선과 얼굴 표정에는 초월한 기상이 드러난다. 고풍량절(高風亮節)한 고사의 풍모가 넘친다. 그의 뒤로 거대한 아름다리 소나무가 화면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얼핏 보기에 도연명 묘사에 매우 세심하게 공을 들였음을 알 수 있다. “撫孤松而盤桓”을 주제로 한 것도 아니고, 국화를 든 도연명을 그리면서 화

10 <귀거래도>의 전개 양상에 대한 더 상세한 내용은 이종숙, 앞의 논문 참조.

11 조인희는 “도연명을 상징하는 경물로 인지되는 소나무는 도연명의 「귀거래사」 ‘撫孤松而盤桓’과 관련해서 도연명을 상징한다”고 했다. 조인희, 앞의 논문, p.124 각주 249 참조.

가는 왜 배경으로 소나무를 선택했을까? 왜 이토록 고송의 비중을 크게 두었을까?

이 그림 속 고송이 의미하는 바를 알기위해서는 「음주」 제4수와 제8수를 읽어야 한다. 「귀거래혜사」에는 드러나 있지 않는 “외로운 소나무를 어루만지며 서성이는” 속마음도 역시 이 두 편의 시에 잘 드러나 있다. 먼저 「음주」 제4수를 보자.

무리 잃은 새 초조해  
날 저무는데도 홀로 나네  
멈추지 않고 여기저기 배회하며  
밤마다 우는 소리 더욱 구슬프다  
그 다급한 소리 맑고 먼 데 그리는 듯  
오락가락 어찌 그리 연연하는지  
홀로 자란 소나무 만나  
날개 깃 거두고 먼데서 돌아왔네  
거센 바람에 무성한 나무 없건만  
이 그들만은 시들지 않았네  
몸을 맡길 곳 얻었으니  
천년토록 떠나지 않으리라

栖栖失群鳥，日暮猶獨飛。  
徘徊無定止，夜夜聲轉悲。  
厲響思清遠，去來何依依。  
因值孤生松，斂翮遙來歸。  
勁風無榮木，此蔭獨不衰。  
託身已得所，千載不相違。

“무리 잃은 새(失群鳥)”가 홀로 방황하다가 마침내 “홀로 자란 소나무(孤生松)”를 찾아 깃든다는 요지의 내용이다. 무리 잃은 새는 세속과 어울리지 못하는 시인의 자기 투영이다. 전반부는 세상과 어울리지 못해 홀로 “맑고 먼(清遠)” 곳을 찾아 슬피 울며 헤매는 새의 초조함과 슬픔을 묘사하여 인생길을 모색하는 시인의 괴로움과 번뇌를 드러냈다. 후반부는 마침내 귀을 선택하고 거기에 몸을 맡겨 자신이 선택한 길을 다시 되돌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무리를 잃은 외

로운 새가 깃든 ‘고송(孤松)’은 오랜 방황과 모색을 통해 내린 자기 인생에 대한 결단이며 어떤 시련이 닥쳐도 그것을 견지하겠다는 의지의 표상이다.

도연명은 이러한 결심을 끝까지 저버리지 않은 참된 은사로 후인들의 존경을 받았다. 공자가 “추워진 뒤에야 소나무 잣나무가 늦게 시들을 알게 된다(歲寒然後, 知松栢之後彫也)”고 했던 바와 같이 힘든 시절을 어떻게 견디는지를 보아야 그 사람의 지조를 제대로 알 수 있다. 「음주」 제8수에서 도연명은 자신을 소나무에 비유하여 이렇게 노래했다.

푸른 소나무 뜰 동쪽에 있는데  
온갖 풀이 그 모습 덮어버렸네  
된서리에 다른 초목 다 시드니  
높은 가지 출중함이 드러나네  
수풀에 묻혔을 적엔 몰라보더니  
홀로 푸르니 모두들 빼어나다 여기네  
슬병 들고 찬 가지 어루만지며  
또 무엇 하러 멀리 바라보나  
꿈같이 덧없는 이 내 인생  
무슨 일로 세속의 굴레에 얽매이라

青松在東園, 羣草沒其姿.  
凝霜殄異類, 卓然見高枝.  
連林人不覺, 獨樹衆乃奇.  
提壺撫寒柯, 遠望復何爲.  
吾生夢幻間, 何事繼塵羈.<sup>12</sup>

초목이 무성한 시절에는 소나무가 다른 초목에 뒤덮여 특별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된서리가 내린 뒤 모든 초목이 다 시들고 나면 독야청청한 소나무의 빼어나가 우뚝하게 드러난다. 소나무를 어루만지는 시인의 행위는 자신이 선택한 이 삶이

---

12 陶潛, 앞의 책, p.226.

설령 신산한 고통을 수반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다시 세속의 굴레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뜻을 재차 확인하는 것이다. 물질적 욕망과 세속적 가치에 눈 돌리지 않고 자기 마음이 편안히 여기는 본래적인 삶의 길을 계속 걸어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도연명은 공자가 말한 “군자는 곤궁할 때에도 의연하다(君子固窮)”고 한 군자의 덕을 견지한 은사였다. 출퇴(出退)에 대해 가졌던 갈등과 고뇌를 청산하고 41세에 「귀거래혜사」를 부르며 귀을 단행한 후 다시 출사하지 않았다. 그는 몸소 농사짓고 살면서 남은 생을 마쳤다. 조정에서 저작랑으로 그를 불렀을 때에도 응하지 않았고, 강주자사로 부임한 단도제(檀道濟, ?~436)가 인사차 들렀다가 벼슬하기를 은근히 권했을 때에도 뿌리쳤다.<sup>13</sup> 당시 그는 굶주림과 병으로 심한 고통을 겪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념을 바꾸지 않았다. 그리하여 당시 사람들은 도연명을 주속지(周續之, 377?~423), 유유민(劉遺民, 352~410)과 더불어 ‘심양삼은(潯陽三隱)’이라 불렀다고 한다. 이러한 이유로 소나무는 도연명의 ‘고궁(固窮)’의 지조를 상징하는 소재로 그림에 자주 등장한다. <귀거래도>에서 ‘무송반환(撫松盤桓)’이 빠짐없이 화제로 등장하는 이유도 이런 때문이다.

명나라 육치(陸治, 1496~1576)의 <팽택고종(彭澤高蹤)><sup>도6</sup>은 ‘도연명의 뼈어난 자취(彭澤高蹤)’를 소나무와 국화를 통해 상징적으로 표현하였다. 앞뒤로 나란히 선 두 그루 소나무가 화면의 반



6  
육치  
<팽택고종>  
종이에 수묵  
34.2×23.8cm  
대만 국립고궁박물관

13 「의희 연간 말에 저작좌랑으로 불렸으나 가지 않았다.(義熙末，徵著作佐郎，不就。)」, 沈約, 『宋書』卷93 「列傳第五十三·隱逸·陶潛」; “강주자사 단도제가 방문하러 갔더니 도연명은 아위고 굶주린 채 자리에 누운 지 며칠이나 되었다. 단도제가 ‘천하에 도가 없으면 은거하고, 도가 있으면 나아가 벼슬하는 것이 현자의 처세인데, 지금 그대는 문명한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어찌하여 이처럼 고생하십니까?’라고 물었다. 도연명이 ‘제가 어찌 감히 현자이기를 바라겠습니까? 제 뜻은 거기에 미치지 못합니다.’라고 대답하였다. 단도제가 식량과 고기를 선사하였으나 손을 내저으며 사양하였다.(江州刺史檀道濟往候之，偃臥瘠餒有日矣。道濟謂曰，‘賢者處世，天下無道則隱，有道則至。今子生文明之世，奈何自苦如此?’對曰，‘潛也何敢望賢? 志不及也。’道濟饋以梁肉，麾而去之。)」, 蕭統, 「陶淵明傳」, 『도연명전집』, 이성호 옮김 (문자향, 2010), p.16.

을 차지한다. 언덕 비탈 바위 앞에서 자라는 소나무는 두 그루의 가지가 서로 얽혀서 잎이 뺨뺨하다. 도연명은 그 소나무에 기대 앉아 국화 한 가지를 손에 든 채 면테를 응시하고 있다. 그의 발치 아래쪽으로 약간 떨어진 곳에 국화 떨기가 있다. <팽택고종>은 앞에서 살펴본 양해의 <동리고사도>와 달리 매우 정적이다. 국화를 따다가 눈에 들어온 남산을 고요한 침묵 속에 물끄러미 바라보며 무아지경에 이르렀던 아주 짧지만 강렬한 순간을 포착한 것으로 보인다. 마음에 일어나는 세속적 욕망이 사라지고 외물과 자기와의 경계가 사라진 경지에 이르렀을 때 느끼는 자유로움과 평화로움이 느껴진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앞 장에서 살펴본 동기창의 <채국망산도>, 석도의 <도시채국도>, 정선의 <동리채국>, 양기성의 <도령채국>, 한후방의 <동리채국> 등에 빠짐없이 소나무가 등장하는 것도 역시 그저 회화적 조형미와 관습에 의해 선택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거기에는 도연명이 「음주」시 제4수와 제8수를 통해 기탁한 '고궁'의 지조를 표현하려는 특별한 의도가 개입되어 있다. 특히 동기창의 <채국망산도>나 석도의 <도시채국도>에 소나무가 화면의 중심에 비중 있게 구상된 것은 그러한 의도의 강력한 표출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소나무가 그려진 <채국도>는 '채국'을 통해 자유자적의 경지를 표현하면서 거기에 덧붙여 곤궁함을 견뎌라도 자적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견지했던 도연명의 고궁절(固窮節)을 함께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화제로 사용된 텍스트로 말하자면 거기에는 「음주」 제5수의 내용을 중심 주제로 하면서 「음주」 제4수 및 제8수의 내용이 복합적으로 존재한다. 비록 그림 제목은 '채국'이지만 소나무를 통해 「음주」 제4수 및 제8수의 함의를 끌어와 그림의 주제를 여러 차원에서 드러내려 한 화가의 주도면밀한 용의가 숨어있음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예로 든 양해의 <동리고사도>와 육치의 <팽택고종>은 국화와 소나무를 빌어 도연명의 '빼어난 자취'를 표현하였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 보아야 할 점은 소나무와 더불어 선택된 국화에 관한 문제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국화가 도연명의 꽃이 된 것은 「음주」 제5수가 결정적인 기여를 했지만, 그 뿐만이 아니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북송시기 주돈이(周敦頤)가 「애련설(愛蓮說)」에서 “진나라 도연명은 유달리 국화를 사랑했다(晉陶淵明獨愛菊)”고 언명한 것처럼 도연명의 국화 사랑은 유별났다. 일찍이 도연명은 「화곽주부(和郭主簿)」 제2수에서 “숲에 핀 향기로운 국화 빛나고 바위 위에 푸른 솔 늘어섰네. 이 곧고 빼어난 자태 품었으니 서리 아래 우뚝한

준걸이라네(芳菊開林耀, 青松冠巖列. 懷此貞秀姿, 卓爲霜下傑)”라고 국화와 소나무를 찬미했다. 그리고 그 자신이 소나무의 ‘곧음(貞)’과 국화의 ‘빼어남(秀)’을 품고 몸소 그렇게 살았다. 도연명은 국화에 자기만의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음주시 제7수를 보자.

가을 국화 빛깔 고와  
이슬에 젖은 그 꽃을 따다가  
근심 잊게 하는 이 술에 띄워 마시니  
세속 잊은 내 마음 더욱 멀어지네  
한 잔 술 비록 홀로 마시지만  
술잔 비면 절로 술병 기울이네  
해 지니 온갖 움직임이 그치고  
돌아오는 새 숲에서 지저귀는데  
동헌 아래서 휘파람 맘껏 불어보는  
이 삶을 다시 얻었네

秋菊有佳色, 裊露掇其英.  
汎此忘憂物, 遠我遺世情.  
一觴雖獨進, 杯盡壺自傾.  
日入群動息, 歸鳥趨林鳴.  
嘯傲東軒下, 聊復得此生<sup>14</sup>

시인이 이슬에 젖은 국화 꽃송이를 따다가 술에 띄워 마실 때, 세속을 떠난 마음이 더욱더 세속과 멀어진다. 해 지니 모든 움직임은 것들이 고요해지는데 홀로 술잔 기울이며 돌아오는 새소리를 듣는 순간 은둔하는 삶에서 얻은 자적으로 인해 자유로움과 평화를 느낀다. 동헌 아래에서 마음 내키는 대로 휘파람 부는 즐거움을 만끽하는 지금 이 삶이 마치 새 삶을 다시 얻은 것처럼 기쁘다. 시인이 오랜 고뇌 끝에 선택한 이 삶의 가치는 오직 자기 이유로 자신이 부여한 의미로부터

---

14 陶潛, 앞의 책, p.2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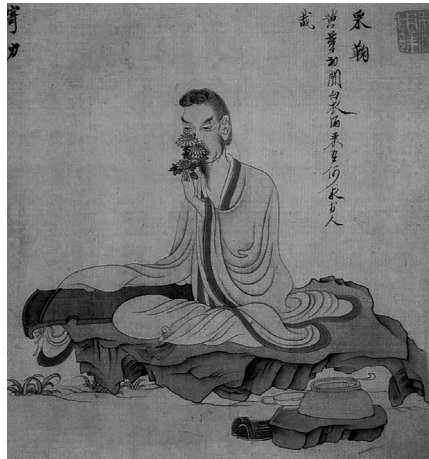
나온 것이며 남들의 인정과는 상관없는 것이다. 자적, 세속에서 인정해주는 가치가 아닌 자기 마음에 맞는 것을 따르는 삶, 국화의 ‘빼어난’ ‘아름다움(佳色)’은 바로 도연명의 이러한 삶의 가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 시에서 표현된 이러한 국화의 이미지는 「음주」 제5수의 “採菊東籬下，悠然見南山”과 더불어 은일의 자적함을 통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삶의 참 의미를 깨달은 은자를 은유하게 되었고, 마침내 “꽃의 은자(花之隱逸者)”<sup>15</sup>가 되었다.

이 시를 읽고 나서 정선의 <채국동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꺾어 온 국화 가지 옆에 놓인 술잔이 의미심장해 보인다. 그것은 아마도 “이슬에 젖은 그 꽃을 따다가 근심 잊게 하는 이 술에 띄워 마시는(裛露掇其英，汎此忘憂物)” 술잔일 것이다. 이제 다음 장에서 ‘채국’과 음주가 함께 결합된 그림에 대해 살펴보겠다.

#### IV. 채국도와 도연명의 음주고사(飲酒故事) 및 문학 텍스트

도연명과 관련된 일련의 고사를 11장면으로 나눠 그린 진홍수(陳洪綬, 1599~1652)의 <도연명고사도(陶淵明故事圖)><sup>7</sup>의 첫 번째 장면 <채국>은 매우 흥미롭다. 제목이 ‘채국’이라 「음주」 제5수를 떠올리게 하는데 그림을 보면 바위에 가

부좌를 하고 앉은 도연명이 국화를 코에 갖다 대고 향기를 맡고 있다. 그 앞에 술잔과 술그릇이 놓여있다. 앞에서 살펴본 채국도와 매우 다른 도상이다. 국화와 술의 조합은 어디서 유래한 것일까? 진홍수가 쓴 화제가 힌트를 준다. “노란 국화 막 피어나니 흰옷 입은 이가 술을 갖다 주네. 내가 어찌 그에게 청했겠는가?(黃花初開，白衣酒來，吾何求於人哉)” 진홍수는 ‘채국’을 그리면서 도연명의 음주와 관



7  
진홍수  
<도연명고사도>  
부분 비단에 채색  
30.3×30.8cm  
호놀룰루미술관

15 周敦頤, 「愛蓮說」, “菊, 花之隱逸者也.”

런된 고사를 원용했다.

『도연명집(陶淵明集)』을 편찬한 남조 양(梁) 소통(蕭統, 501~531)이 “도연명의 시에는 매 편마다 술이 있는 듯하다”<sup>16</sup>고 했을 정도로 그의 시에는 술이 자주 등장한다. 20수의 연작시 「음주」뿐만 아니라 「연우독음(連雨獨飲)」, 「지주(止酒)」 등은 시 제목에 아예 ‘음주’가 등장한다. 음주기행(飲酒奇行)으로 유명한 죽림칠현 중 완적(阮籍, 210~263)과 혜강(嵇康, 224~263 혹은 223~262)의 시에 술이 그리 많이 등장하지 않는 것과 비교하면 특이하다 할 것이다. 죽림칠현과 두보(杜甫, 712~770)의 「음중팔선가(飲中八仙歌)」에 등장하는 당대 ‘음중팔선’<sup>17</sup>과 더불어 도연명의 음주기행 역시 인구에 널리 회자되었다. 『송서·은일전·도잠(宋書·隱逸傳·陶潛)』에 기록된 음주와 관련한 에피소드를 보자.

전에 안연지가 유유의 후군공조가 되어 심양에 있을 때 도연명과 사귀어 우정이 깊었다. 나중에 시안군수가 되어 그곳을 지날 때 날마다 도연명의 집을 찾아갔다. 갈 때마다 반드시 취하도록 술을 마시고 떠날 때 돈 이만 원을 도연명에게 주었다. 도연명은 그 돈을 모두 술집에 주고는 무시로 찾아가 술을 마셨다.

9월 9일 중앙절이 되었는데 마실 술이 없었다. 밖으로 나가 집 근처에 있는 국화꽃 떨기 곁에 오래도록 앉아 있었다. 마침 왕홍이 술을 보내와서 곧장 마시고는 취해서 돌아갔다.

도연명은 음악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으나 현이 없는 소박한 거문고를 하나 가지고 있었다. 술에 취할 때면 거문고를 어루만지며 그 마음을 기탁했다.

귀천을 막론하고 그를 방문하는 자가 있으면 술이 있을 때는 술상을 차렸다. 만약 도연명이 먼저 취하면 손님에게 “제가 취해서 즐리니 그대는 가셔도 됩니다.”라고 말했다. 사람됨이 이처럼 진솔하였다.

군수가 도잠에게 문안하러 들렀을 때 마침 술이 익었기에 머리에 쓰고 있던 갓건을 벗어 술을 걸렀다. 다 거른 뒤에 다시 그것을 머리에 썼다.<sup>18</sup>

16 “有疑陶淵明詩篇篇有酒”『陶淵明集序』, 蕭統, 앞의 책, p.9.

17 술 취한 여덟 신인은 賀知章, 李璣, 李適之, 崔宗之, 蘇晉, 李白, 張旭, 焦遂를 말한다. 이와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강경희, 「詩의 변주, 詩意圖와 序跋-〈飲中八仙歌〉, 〈飲中八仙圖〉, 〈飲中八仙圖序〉」, 『東洋古典研究』(2009. 12) 참조.

18 “顏延之爲劉柳後軍功曹, 在尋陽, 與潛情款. 後爲始安郡, 經過, 日日造潛, 每往必酣飲致醉. 臨去, 留二萬錢與潛, 潛悉送酒家, 稍就取酒. 嘗九月九日無酒, 出宅邊菊叢中坐久, 值弘送酒至, 即便就酌, 醉



친구가 준 거금 이만 전을 모두 술집에다 맡겨 놓고 술을 마셔버린 일, 구월 구월 중앙절에 국화 꽃 속에 앉아 있다가 지인이 보내준 술을 그 자리에서 마시고 취해서 돌아온 일, 술에 취하면 현이 없는 거문고로 자기 마음을 드러내는 것, 머리에 쓴 두건으로 술을 걸러 마신 일 등등은 모두 세속을 초월한 도연명의 초범(超凡)한 인품을 드러내는 비범한 일화로 전해졌다. 이 이야기들 중에서 특히 중앙절에 왕홍이 술을 보낸 '왕홍송주(王弘送酒)' 고사와 같건을 벗어 술을 걸렀다는 '갈건록주(葛巾漉酒)' 고사는 많은 시인과 화가들에게 예술적 영감을 주는 이야기로 사랑받았다.

작자미상의 송대 <유음고사도(柳陰高士圖)>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도연명 상으로 간주된다.<sup>19</sup> 수령이 꽤 오래되어 보이는 버드나무 아래 두건 쓰고 앉아있는 고사는 얼근하게 취한 모습이다. 취했어도 눈빛은 형형하다. 그의 발치에 종이 한 장과 술그릇 하나가 놓여있다. 이 그림의 화제는 비록 <유음고사도>이지만, 그림에도 불구하고 버드나무 아래 앉아있는 취한 은자가 도연명을 연상시키는 것은 널리 알려진 도연명의 「오류선생전」 때문이다.

선생이 어디 사람인지를 모르고 또 성과 자도 자세하지 않으나 집 주변에 버드나무 다섯 그루가 있기에 그것으로써 호를 삼았다. 조용하며 말수가 적었고 영화와 이익을 도모하기를 좋아하지 않았다. 독서를 좋아하였으나 깊이 따지지는 않았고, 마음에 맞을 때면 곧 즐거워 식사를 잊었다. 성품이 술을 좋아하지만 집안이 가난하여 항상 마실 수는 없었다. 친구들이 이를 알고 때때로 술을 마련하여 그를 부르면, 가서 매번 다 마시고 반드시 취하였다. 취하면 물러나는데, 일찍이 떠나고 머무름에 연연하지 않았다. 좁은 방은 행하고 바람과 해를 가리지도 못했다. 짧은 벼옷은 구멍이 나 꿰매었고 밥그릇이 자주 비어도 태연하였다. 늘 글을 지어 스스로 즐겼는데 자신의 마음을 잘 드러내었다. 얻음과 잃음에 대한 생각을 잊고서 이렇게 자신의 생을 마쳤다.<sup>20</sup>

而後歸。潛不解音聲，而畜素琴一張，無弦，每有酒適，輒撫弄以寄其意。貴賤造之者，有酒輒設，潛若先醉，便語客，我醉欲眠，卿可去。其真率如此。郡將候潛，逢其酒熟，取頭上葛巾漉酒，畢還復著之，沈約，《宋書》卷93「列傳第五十三·隱逸·陶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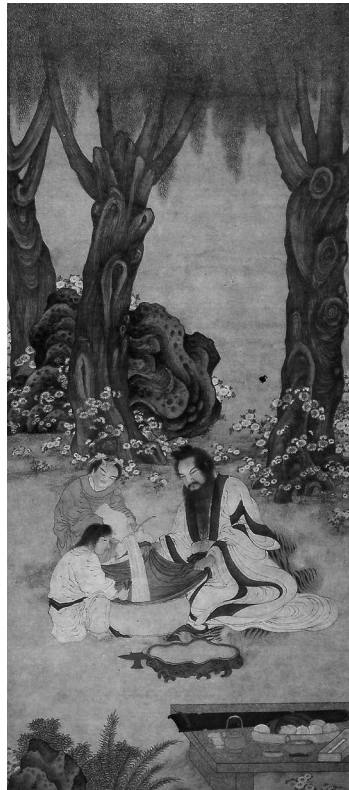
19 王耀庭, 「淵明逸致的形象」, 《故宫文物》제66권, 臺北國立故宮博物院, 1988년 9월), pp.24-25.

20 “先生不知何許人，亦不詳其姓字，宅邊有五柳樹，因以爲號焉。閑靖少言，不慕榮利。好讀書，不求甚解，每有意會，便欣然忘食。性嗜酒，家貧不能常得，親舊知其如此，或置酒而招之，造飲輒盡，期在必醉，

도연명의 「오류선생전」은 ‘오류선생’이라는 허구의 인물을 통해 작가 자신을 비유한 탁전(託傳)이다. 여기에 드러난 오류선생의 인품과 가난한 생활 속에서도 독서, 음주 및 글쓰기를 통해 은거 생활이 주는 흥취를 즐기는 모습은 후대 문인들에게 은둔자의 전형으로 각인되었다. 이로부터 버드나무는 상기한 도연명의 인격적 특징을 상징하는 중요한 모티프가 되어 도연명을 제재로 한 그림에 자주 등장하는 전형적인 소재가 되었다. 상술한 정선의 <채국동리>, 한후방의 <동리채국>, 양기성의 <도령채국>, 석도의 <도잠시의도>의 <유연견남산> 등등에 모두 버드나무가 보이는 것이 그러한 예이다.

「오류선생전」의 내용을 보면 특히 음주에 대한 태도를 묘사한 것이 독서, 글쓰기, 가난한 생활에 대한 묘사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술을 마시면 반드시 다 마시고 취한다는 것은 마시게 되면 호쾌하게 마시며 쾌락을 최대한 즐기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취하면 아무 미련 없이 물러난다는 것은 쾌락에 질질 끌려가 탐닉하지 않는다는 뜻이다.<sup>21</sup> 거리낌 없고 자유로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종에 이르지 않는 것이 그의 음주 미학이다. 거기에는 술을 즐기지만 탐닉하지 않고 주동적으로 즐길 줄 아는 담박하고 초일한 풍류가 있다.

정운봉(丁雲鵬, 1547~1628)의 <녹주도(漉酒圖)>는<sup>도8</sup> 머리에 쓰고 있던 갓건을 벗어 술을 걸렀다는 ‘갓건녹주’ 고사를 주제로 한 그림이다. 화면 가운데에는 도연명이 시동 돌과 함께 술을 거르고 있고 그 주위에는 만개한 국화가 흐드러지게 피어있다. 도연명의 뒷편에 아주 오래된 버드나무 세 그루가



8  
정운봉  
<녹주도>  
종이에 채색  
137.4×56.8cm  
상하이박물관

既醉而退，曾不吝情去留。環堵蕭然，不蔽風日，短褐穿結，簞瓢屢空。晏如也。常著文章自娛，頗示己志，忘懷得失，以此自終。”陶潛， 앞의 책， pp.420-421.

21 가와이 코오조오, 『중국의 자전문학』, 심경호 옮김 (소명출판, 2002), p.102.

푸른 잎을 무성하게 드리우고 늘어서 있다. 도연명의 음주 고사를 주제로 한 이 그림의 절반을 차지하는 버드나무는 특별한 의도가 있어 보인다. 그것은 바로 독자에게 「오류선생전」의 음주 미학을 환기시키는 시각적 장치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흐드러지게 핀 국화 역시 「음주」 제5수와 제7수를 소환한다.

죽림칠현이나 음중팔선의 음주가 체제에 대한 저항정신을 드러내는 성격이 강하다면 도연명의 음주는 적정(寂靜)의 정신적 상태에 이르는 통로였다. 도연명이 음주를 통해 도달한 정신세계는 「음주」 제14수에 잘 나타나있다.

친구들 내 좋아하는 것 잘 알아서  
술병 들고 찾아왔네  
싸리 덩불 깔고 소나무 아래 앉아  
몇 잔 마시니 벌써 취한다  
동네 노인들도 끼어 멋대로 떠들어대니  
술 따르는 차례도 잊어버렸네  
내가 있다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데  
외물이 귀함을 어찌 알겠나  
유유히 그 속에 머무르니  
술 속에 깊은 맛이 있구나

故人賞我趣，挈壺相與至。  
班荆坐松下，數斟已復醉。  
父老雜亂言，觴酌失行次。  
不覺知有我，安知物爲貴。  
悠悠迷所留，酒中有深味。<sup>22</sup>

자기를 잊고 마침내 외물도 잊어버린다는 것은 물아가 모두 사라져 아무것도 구속함이 없는 대자유의 상태이다. 도연명은 그곳에서 유유히 머무르며 ‘술의 참맛’을 만끽한다. 도연명에게 술이란 바로 이러한 경지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문

---

22 陶潛, 앞의 책, p.238.

이다. 깨어 있을 때는 변하지 않는 고유한 실체로서의 내가 있다는 ‘아집(我執)’을 놓아버리기 어렵다. 그러나 술에 취하면 ‘망아(忘我)’에 이르고 외물의 구속으로부터 자유로운 ‘진아(眞我)’를 경험한다. 음주를 통해 도달하는 이러한 정신 상태로 말미암아 청대 학자 온여능(溫汝能, 1748~1811)은 도연명을 ‘주중성자(酒中聖者)’라고 극찬했다.<sup>23</sup>

「오류선생전」과 「음주」 제14수에서 보듯이 도연명의 음주에는 쾌락을 남김없이 즐기지만 쾌락의 노예가 되지 않는 초일한 풍류가 있고, 몰아상망(物我相忘)의 경지에 이르러 물외에서 노니는 고상함이 있다. 이 때문에 그는 ‘주중성자’라고 칭해졌고 그의 음주는 탈속한 인간의 비범함이 드러나는 일화로 인구에 회자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도연명의 음주고사는 많은 문인과 화가들의 작품 주제가 되어 끊임없이 창작되었다.

명대 장봉(張鵬, 생몰년 미상)의 〈연명취귀도(淵明醉歸圖)〉도9는 ‘주중성자’ 도연명을 그렸다. 얼근히 취한 도연명이 고개를 아래로 비스듬히 떨구고 시동의 부축을 받으며 걸어가고 있다. 만면에 드러난 흡족한 표정이 눈에 띈다. 가볍게 감은 두 눈, 살짝 치켜 올라간 입꼬리가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 듯한 표정을 지어낸다. 내면의 평정이 얼굴 표정에 다 드러난 듯하다. 도연명의 얼굴에 번진 그 미소는 곁에 있는 시동의 얼굴에까지 번졌다. 흡족한 기분에 도취된 도연명을 바라보는 시동도 역시 기분이 좋은지 순박한 얼굴 가득히 미소를 짓고 있다. 그는 왼손으로 도연명의 팔을 잡고 부축하고 오른 손에 국화꽃 한 가지를 들고 있다. 동자의 손에 들린 국화 한 가지로 인해



9  
장봉  
〈연명취귀도〉  
종이에 채색  
120×60cm  
광동성박물관

23 溫汝能, 『陶詩彙評』卷三, “세인들은 자기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외물을 잊지 못한다. 물아가 존재하면 움직임에 구속이 많아진다. 도연명이 자기를 잊은 것은 『莊子·齊物』편을 능가하니 아마도 酒中聖者 이리라. (世人惟知有我, 故不能忘物, 物我之見存, 則動多拘忌矣. 淵明忘我更勝于齊物, 其殆酒中聖者歟!)” 陶潛, 앞의 책, p.239.

“왕홍이 보내준 술을 그 자리에서 마셔버리고 취해서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연상하게 한다.

중양절에 왕홍이 술을 보내준 이야기는 『송서』, 소통의 『도연명전』, 『남사(南史)』 등에 모두 같은 내용이 수록되어있다. 다만 『속진양추(續晉陽秋)』에는 왕홍이 보낸 술을 흰옷을 입은 사람이 가지고 왔다는 점이 더 보태졌다.<sup>24</sup> 이 이야기는 도연명의 음주 고사에 미담으로 남아 이후 많은 문인들이 중양절을 소재로 하는 시의 전고로 애용했고, 그림의 주제로도 환영받았다. 상술한 진홍수의 <도연명고사도>의 ‘채국’에 적힌 화제에 보이는 “白衣酒來”가 바로 그러한 예의 하나이다.

당인(唐寅, 1470~1524)의 <도잠상국도(陶潛賞菊圖)><sup>10</sup>는 술병을 들고 오는 흰 옷 입은 심부름꾼이 등장하여 ‘왕홍송주’ 고사의 내용을 그대로 화폭에 담

았다. 도연명은 소나무와 바위가 있는 배경 속에 신발을 벗고 앉아 들에 핀 국화를 감상하고 있고, 그 맞은편에서 있는 시동은 누군가 술을 들고 온다는 사실을 도연명에게 알리고 있는 듯하다. 높이 솟은 원산(遠山) 옆에 당인의 자제시(自題詩)가 화제로 씌어있다. “은 땅에 서리 바람 가득한데 국화가 금빛 꽃을 피웠네. 취하면 현이 없는 거문고를 연주하고, 물끄러미 남산 바라보던 그 마음. 천년이 지나도록 그 마음 얻은 이 없다지.(滿地風霜菊綻金, 醉來還弄不絃琴. 南山多少悠然意, 千載無人會此心.)” 화면에 표현된 도상은 “왕홍송주” 고사만 묘사했지만, 당인이 쓴 화제에는 「음주」 제5수의 “採菊東籬下, 悠然見南山”을 인용하고 있다.

중양절에 마실 술이 없었다는 사실은 도



10  
당인  
<도잠상국도>  
비단에 채색  
71.4×37.2cm  
상하이박물관

24 檀道鸞, 『續晉陽秋』, “도연명이 일찍이 구월 구일에 술이 없었다. 집 근처 국화 떨기가 있는 데로 나가서 국화를 한 움큼 따고는 오래 앉아 있었다. 흰 옷을 입은 사람 하나가 보이는데 강주자사 왕홍이 보낸 술을 가지고 온 것이었다. 그 자리에서 즉시 마시고는 취해서 돌아갔다. (陶潛九月九日無酒, 出宅邊菊叢中坐, 摘菊花盈把, 久之, 望見白衣人至, 乃江州刺史王弘送酒, 即便獨酌, 醉而後歸.” 蘇軾著, 馮應榴輯注, 黃任軻, 朱懷春校點, 『蘇軾詩集合注』(上海古籍出版社, 2001), p.382에서 재인용.

연명의 시「구월 구일에 한가로이 지내며(九日閒居并序)」에도 보인다.

나는 한가로이 지내며 구월 구일 '중구(重九)'라는 명칭을 좋아한다. 가을 국화가 정원에 가득 피었으나 술이 없기에 그저 국화꽃을 먹으며 감회를 노래한다.

인생은 짧으나 생각은 늘 많아  
사람들 오래 사는 것 좋아하는데  
시간이 흘러 9월 9일이 되니  
온 세상이 다 그 이름 좋아한다.  
이슬이 차고 따뜻한 바람 그치니  
공기는 맑고 하늘은 청명하다.  
떠난 제비 그림자도 남아있지 않고  
오는 기러기 소리 여운이 남아 있다.  
술은 온갖 근심 없애고  
국화는 늙는 것 막아준다는데  
어찌하여 초가집 선비는  
기울어가는 세월 우두커니 보고 있나  
먼지 낀 술잔 빈 술동이 부끄러운데  
국화는 부질없이 절로 피었다.  
웃기 여미고 홀로 한가로이 노래 부르니  
아득히 깊은 정 일어나네  
한가로운 삶에는 진실로 즐거움 많으니  
오래 머문다고 해서 어찌 이루는 것 없으랴.

余閒居，愛重九之名。秋菊盈園，而持醪靡由。空服九華，寄懷於言。

世短意常多，斯人樂久生。  
日月依辰至，舉俗愛其名。  
露凄暄風息，氣澈天象明。  
往燕無遺影，來雁有餘聲。  
酒能祛百慮，菊解制頽齡。

如何蓬廬士, 空視時運傾,  
 塵爵恥虛壘, 寒花徒自榮.  
 斂襟獨開謠, 緬焉起深情.  
 棲遲固多娛, 淹留豈無成.<sup>25</sup>

9월 9일 중양절은 9가 두 개 겹치는 날이라 ‘중구(重九)’라고 불렀다. 중국어로 구(九)는 오렐 ‘구(久)’자와 해음(諧音)관계에 있으므로 중양절에 국화주를 마시며 장수를 기원하는 세시풍속이 고래로부터 존재했다. “술은 온갖 근심 없애고, 국화는 늙는 것 막아”주므로 국화주를 마시며 오래도록 근심 없이 장수하기를 바랐던 것이다. 도연명도 역시 중양절이라 국화주를 마시고 싶지만 가난한 살림살이라 술을 마련하지 못해 국화만 먹는다.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바라는 것은 퇴직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은거하는 것이다. 가난한 형편 때문에 마음은 자꾸 흔들리지만 은거하며 한가로이 사는 삶도 그 나름의 성취가 있으리라 믿으면서 은거하는 쪽으로 마음이 기운다.

이 시를 읽고 진홍수의 《도연명고사도》〈채국〉 장면을 다시 보면 그림과 시가 서로 오버랩 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먼지 쌓인 술잔, 빈 술동이, 마실 술이 없어 부질없이 국화만 바라보는 시 속의 도연명이 국화 향을 맡으며 그림 속에 앉아있다. 이 시를 통해 이 그림을 보면 궁핍한 현실이 은거하려는 마음을 자꾸만 흔들어 대도 자기 본성에 맞는 삶이 주는 기쁨을 끝내 저버리지 않았던 은사 도연명의 지조가 더 깊게 느껴진다.

진홍수 〈채국〉의 세부 구성 요소들을 살펴보면 제목은 ‘채국’, 화제에는 ‘왕홍송주’, 도상은 ‘상국’이다. 당인의 〈도잠상국도(陶潛賞菊圖)〉는 제목은 ‘상국’, 화제에는 ‘채국’, 도상은 ‘왕홍송주’로 구성되어 있다. 도연명의 시구에서 유래한 ‘채국동리’를 주제로 한 그림은 이렇게 다양한 요소들이 한 화면에 혼용되어 화가의 개성에 따라 다양하게 변주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조선 말기 화가 백은배(白殷培, 1820~?)의 〈동리채국도〉<sup>26</sup>는 그 다양한 변주의 흐름에 또 하나의 새로운 시도를 보여주어 흥미롭다. 이 그림의 제목은 ‘채국’인데 화면에는 붓, 벼루, 종이가 등장한다. 화면 가운데에 오른팔로 땅을 짚고 왼손

25 陶潛, 앞의 책, p.70.

26 그림은 유옥경, 앞의 논문, 도판 95 참조.

은 무릎 위에 놓은 채 먼 곳을 바라보는 도연명이 앉아 있다. 그의 앞에 붓, 벼루, 펼쳐진 두루마리 종지와 술잔이 일렬로 벌여있다. '동리채국'을 주제로 하는 그림에 등장하는 지필연(紙筆硯)은 참으로 참신하다. 화가는 무엇을 근거로 이런 상상을 했을까? 글쓰기 도구를 통해 무엇을 표현하고 싶었을까?

이 그림의 지필연은 「음주」 20수의 서문을 소환한다. 이 서문은 20수의 연작 시 「음주」가 어떻게 창작되었는지 그 배경을 알려준다.

내가 한가로이 살다보니 즐거운 일이 별로 없는데다가 요즘 밤도 길어졌다. 우연히 이름 난 술이 생겨 밤마다 마시는데 그림자 돌아보며 홀로 마시다 보면 어느새 취하였다. 취한 뒤에는 매 번 몇 구절을 적어 스스로 즐겼다. 시를 적은 종이가 많아지자 말에 차례가 없어서 친구에게 그것을 적게 하여 즐거운 웃음거리로 삼는다.<sup>27</sup>

「음주」 20수는 홀로 자작하다가 취하면 그때그때의 흥취를 시로 노래한 것이다. 도연명이 밝힌 시 쓰기의 목적은 '자오(自娛)'에 있다. 이는 「오류선생전」에서 “늘 글을 지어 스스로 즐겼는데 글에 자신의 마음을 잘 드러내었다.(常著文章自娛, 頗示己志)”고 한 서술과 부합된다. 술 마신 뒤 취중의 흥취가 낳은 시 「음주」는 천고의 명편이 되어 전해졌다. 그러므로 백은배의 〈동리채국〉은 바로 상국과 독음(獨飲)과 자오에 의한 글쓰기가 낳은 절창인 「음주」 20수와 도연명에 대한 흠모와 추구이다. 좋은 시구를 얻기 위해 눈 오는 이른 새벽 매화를 찾아나서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던 그 옛날 문인들에게 도연명의 「음주」와 같은 명편을 쓰고 싶은 것은 꿈꾸어봄직한 일이었을 것이다.

## V. 맺음말

본고는 도연명의 「음주」시를 제재로 한 〈채국도〉를 중심으로 하여 문학 텍스트와 회화 이미지 사이의 상호텍스트성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그 결과 도연명의 「음주」 제5수를 주제로 하는 〈채국도〉에 도연명의 여러 다른 문학작품들이 함께 융

27 “余閒居寡歡, 兼比夜已長. 偶有名酒, 無夕不飲. 顧影獨盡, 忽焉復醉. 既醉之後, 輒題數句自娛. 紙墨遂多, 辭無詮次. 聊命故人書之, 以爲歡笑爾.” 陶潛, 앞의 책, p.211.



합되면서 그림의 이미지에 더 다채롭고 풍부한 내용이 담겨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먼저 제2장에서는 「음주」 제5수와 그 시의도로서의 〈채국도〉를 살펴보고, 그 속에 ‘채국’, ‘동리’, ‘남산’이 전형적인 모티프로 등장함을 고찰하였다. 제3장에서는 〈채국도〉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소나무에 주목하여 양해의 〈동리고사도〉와 육치의 〈팽택고종〉과 같은 그림을 근거로 들어 그것이 「음주」 제4수 및 제8수와 관련이 있음을 밝혔다. 「음주」 제4수와 제8수의 의미를 통해 〈채국도〉의 소나무는 곤궁함을 겪더라도 자적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지했던 도연명의 고궁절(固窮節)을 표상하는 이미지임을 알 수 있었다. 〈채국도〉에 소나무를 이용하여 도연명의 고궁절을 표현함으로써 그림의 주제를 여러 차원에서 드러내려 한 화가의 숨은 용의를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일련의 〈채국도〉가 도연명의 음주고사와 결합되어 나타나는 현상을 고찰하면서 여기에는 「음주」 제7수와 제14수, 「구일한거」, 「오류선생전」, 「음주」시 서문 등이 연관되어 있음을 고찰했다. 이상의 연구 결과 〈채국도〉는 상술한 문학 텍스트와의 상호텍스트성을 통해 ‘채국’, ‘상국’, ‘음주’고사, ‘자오(自娛)적 글쓰기’와 같은 다양한 요소들이 화면에 개입되어 화가의 개성에 따라 다양하게 변주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상술한 논의를 통해 〈채국도〉 계열의 그림에 나타나는 시각적 이미지가 도연명의 여러 문학작품을 소환함으로써 도연명의 은일에 대한 의미를 다층적으로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채국도〉에 내포된 다양한 함의에 대하여 좀 더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이해에 접근할 수 있었다. 회화와 문학 간의 상호텍스트성을 고찰한 본 연구를 통해 〈채국도〉의 화제가 다양하게 변주되는 양상을 탐색하는 심화연구에 일조하기를 기대한다.

#### 주제어 keywords

채국도 採菊圖 *Picking chrysanthemums painting*, 도연명 陶淵明 *TaoYuanming*, 음주시 飲酒詩 *Yinjju*, 채국동리 採菊東籬 *Picking chrysanthemums at east fence*, 상국 賞菊 *appreciation chrysanthemums*, 상호텍스트성 *intertextuality*

투고일 2018년 2월 19일 | 심사일 2018년 3월 8일 | 게재확정일 2018년 4월 9일

## 사료

- 陶潛 著, 龔斌 校箋, 『陶淵明集校箋』,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9.
- 蕭統 著, 『陶淵明傳』, 『도연명전집』, 이성호 옮김, 서울: 문자향, 2010.
- 『宋書』
- 『御定歷代題畫詩類』, 『四庫全書』本
- 福開森編, 『歷代著錄畫目』, 人民美術出版社, 1993.

## 논저

- 가와이 코조, 심경호 옮김, 『중국의 자전문학』, 서울: 소명출판, 2002.
- 강경희, 「詩의 변주, 詩意圖와 序跋: 〈飲中八仙歌〉, 〈飲中八仙圖〉, 〈飲中八仙圖序〉」, 『東洋  
古典研究』, 2009. 12.
- 류준필, 「한자문화권 문화교육에서의 古文 활용방안과 그 의의」, 『중국어문학지』 26, 2008. 4.
- 원정근, 「陶淵明의 되돌아감(歸)의 의미」, 『道敎文化研究』 21, 2004.
- 위안싱페이, 김수연 옮김, 『도연명을 그리다』, 파주: 태학사, 2012.
- 유미나, 「中國詩文을 주제로 한 朝鮮後期 書畫合璧帖 研究」,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 유옥경, 「朝鮮時代 繪畫에 나타난 飲酒像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 이종숙, 「朝鮮時代 歸去來圖 研究」,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 조인희, 「조선후기 詩意圖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 王耀庭, 「淵明逸致的形象」, 『故宮文物』 66, 臺北國立故宮博物院, 1988. 9.

## A Study on Intertextuality between *Picking Chrysanthemums Painting* and TaoYuanming Works of Literature

Kang, Kyunghee

This study aimed to find intertextuality between *Picking chrysanthemums Painting* (採菊圖) and TaoYuanming (陶淵明) works of literature. The images of *Picking chrysanthemums Painting* contain plentiful contents as they fused with many literary works of TaoYuanming. First of all, the typical motifs of *Picking chrysanthemums Painting* as a poetry-based painting of *Yinjiu* (「飲酒」) the fifth are picking chrysanthemums (採菊), east fence (東籬) and south mountain (南山). Second, the pine tree expressed in *Picking chrysanthemums Painting* revealed the symbolic meaning through *Yinjiu* the forth and the eighth. The pine tree symbolizes a spirit of TaoYuanming that does not give up to pursue a life of his own mind to the end when he has lived in poverty. Third, some of *Picking chrysanthemums Painting* are combined with drinking story of TaoYuanming, and they are associated with *Yinjiu* the seventh and the fourteenth, *Jiurixianju* (「九日閒居」), *Wuliuxianshengzhuan* (「五柳先生傳」) and *Yinjiu* preface. Finally, to conclude, *Picking chrysanthemums Painting*, through intertextuality with the aforementioned literary texts, contain the elements of picking chrysanthemums, appreciation chrysanthemums, drinking story and amuse himself by writing. And in which there are various variations depending on the personality of the painters.

Consequently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visual images of *Picking chrysanthemums Painting* have connoted the multi-layered meaning of reclusiveness of TaoYuanming, and to get a more comprehensive and multifaceted understanding of the various implications being contained in *Picking chrysanthemums Painting*. I hope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further research of variation on the subjects of painting of *Picking chrysanthemums Painting*.